

2012 Spring

Vol. **72**

# 희망미소

[www.kclf.org](http://www.kclf.org)



Korea Childhood Leukemia Foundation  
재단법인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 엄마의 행복은 아이의 미래



임민상  
(주)맘스 대표이사

오래전에 '가시고기'라는 책을 통해 백혈병 어린이와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아픔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힘든 치료 과정 속에서 웃음을 잃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아들과, 그 아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을 나누어 주던 아빠의 모습에서 참으로 많은 눈물을 쏟았고, 아이들의 아빠로서 저에 대해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땅의 같은 고통을 겪을 많은 부모와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주는 일을 찾아보아야겠다고 말이지요.

사실 이 글을 읽을 많은 부모님들은 오랜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며 지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터놓지 못할 속병으로 인해 힘들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암 발병을 자신의 탓이라는 자책으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대처해나가야 할 난관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어두운 새벽을 지나야 밝은 해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이제 곧 부모님들께 밝고 영롱한 해가 떠오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회사는 임신부부터 학부모까지, 어머니라면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정성스럽게 쓴 글을 책으로 출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는 그 정성 가득한 글을 모아 '맘스다이아리'라는 책을 발간하였으며, 인세의 수익금 전액을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엄마 회원들이 소아암 어린이들의 쾌유를 도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작은 힘들이 모여 난관을 헤쳐 나갈 지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사회가 행복해집니다. 이 땅의 모든 엄마들이 행복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 ‘함께’ 이어서 이겨냅니다.

2010년 10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아이는 감기, 두통으로 동네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리고 시력이 떨어져 걱정이라던 애 아빠의 말에 별다른 생각 없이 시력 회복 방법이 있을까 해서 찾아간 대학병원에서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받아들이기 수 없었지만 진단 결과는 현실이 되었다. 두통을 호소하는 아이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에 상황은 긴박해져만 갔다.

새벽 3시, 구급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하여 8시간에 걸친 머리 수술 후, 바로 항암치료가 시작되었다. 계속되는 주사, 구토, 장마비... 6살 아이가 받기에는 너무나 힘든 치료과정이었다. 주사만 봐도 기겁하는 아이였는데... 아이의 고통을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다. 나는 종양이 제발 없어지게 해달라고, 아이의 눈이 조금이나마 더 잘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밤을 눈물과 기도로 지새웠다. 엄마와 누나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갑자기 떠나버리자, 둘째 아이는 할머니에게 홀로 남겨져 새벽이면 일어나서 울었다. 아이 아빠는 덩그마니 혼자 남겨져 집을 지켜야만 했다. 악몽 같은 현실이 우리 가정을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다.

아이와 나는 치료를 위해 병원 근처 집을 알아보던 중, ‘신촌 우체국 한사랑의집’이라는 쉼터를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해야하는 쉼터가 부담스러웠지만 막상 생활해 보니 집만큼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돈으로 마련해야하는 전세방이나 월세방보다는 훨씬 좋았다.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같은 아픔을 갖고 서로를 이해해 주는 다른 가족들과 함께이어서였다. 쉼터에는 치료를 받고 지쳐서 돌아왔을 때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친구가 있었고, 서로 공유

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도 있었다. 친구가 없는 아이에게는 함께 놀 수 있는 언니, 동생이 있었다. 아이는 쉼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했기에 치료받는 중에도 우울하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또 아이의 상태가 괜찮을 때는 다양한 체험 및 나들이 행사에 참여하여 잠시나마 고통스러운 치료를 잊을 수 있었다. 이러한 즐거운 경험들이 아이의 치료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지난 12월, 그 힘들었던 항암치료를 마쳤다. 아직 완전한 치료종결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 항암치료를 마친 것만으로도 한시름 돌린 듯하다. 아이는 원장선생님의 배려로 그렇게 좋아하던 유치원에, 남은 한두 달이나마 열심히 다니고 있다. 그리고 3월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진단을 받고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아프다는 슬픔과 분노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우리 사회가 아직은 따뜻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절망적이었던 뇌종양 진단, 하지만 희망과 사랑을 전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있었기에 수술과 항암치료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며 사회공헌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서 후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다.

아직은 살얼음을 밟듯이 하루하루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지만, 아이가 완치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파이팅할 것이다. 그리고 희망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우리가족도 그 대열에 함께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타할아버지, 흑(종양)을 없애는 약을 선물해 주세요.’ 라는 아이의 크리스마스 소원처럼 의학기술이 더 많이 발전하여 투병 중인 우리 아이들이 부작용 없이 모두 나올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다.

＊ 예승이는 2010년 10월 뇌종양으로 진단받고, 2011년 12월 치료종결했습니다. ＊

## 2012년 보건소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INFORMATION

### 대상

18세 미만(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단, 2011년도 기지원자 중 2012년도에 만 18세(1993년 1월 1일~1993년 12월 31일)가 되는 자에게도 지원하되 2012년도에 한함.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1)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
- 2) 건강보험 가입자 중 다음의 소득 및 재산기준에 속하는 자

가. 소득(원/월)

2인	3인	4인	5인
2,826,591	3,656,619	4,486,650	5,316,681

나. 재산(원)

2인	3인	4인	5인
229,783,957	249,688,705	269,593,525	289,498,345

### 지원항목

- 1)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2)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3)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4)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
- 5) 의료비 관련 약제비(희귀의약품의 경우 담당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6) 담당의사의 소견서 필요한 경우
  - 약제비 중 희귀의약품(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내 약품)
  -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의료비
  -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인공뼈, 인공안구, 인공삼입물, 제대혈 비용 등)
  -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입비(만 4세~만 18세 미만 1회 한함. 최대 100만원)
  -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지원금액

- 1)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3,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2)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3) 단, 당해 연도에 기타 암종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자 등록 및 지원

등록 신청 장소 :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자료출처 : 2012년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조카 2탄'이 태어났다.

나는 이제 운동화도 두 개 사야 되고,  
가방도 두 개 사야 되고,  
장난감도 두 개 사야 된다.

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하

글. 그림 소복이.  
sobogi.net



## 얼깁이와 정개구리 결혼합니다.



**조 정 한 & 정 유 니**  
 1984년생 1984년생  
 1997년 10월 물리치료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진단  
 2001년 1월 치료종결  
 현재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 재학 중

재단의 2004년 봄호 소식지 ‘소아암을 이긴 아이들’의 주인공 조정한씨가 2012년 2월, 결혼한다는 소식을 긴급 입수하였습니다. 반가운 소식을 듣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새신랑과 새신부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습니다. 신혼집 청소를 하던 중, 그 바쁜 시간을 쪼개어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 준 풋풋한 새신랑과 새신부 함께 만나보실까요?

###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요?

정유니(이하, 정) : 아는 분의 소개로 만나서 1년 정도 사귀었어요.

### 서로의 어느 부분에 매력을 느꼈나요?

조정한(이하, 조) : 남자를 세워줄 줄 아는 여자, 그리고 검소한 여자예요. 제가 뭐 짤돌이는 아니지만, 검소하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정 : 정말 이해심이 많아요. 어떤 일에도 화를 내거나, 분을 내지 않아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기댈 수 있는 그런 남편을 맞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정한씨가 딱 그런 사람이예요.

### 서로에 대한 애칭이 있나요?

조 : 저는 이 사람을 ‘정개구리’라고 하죠. 이 친구가 제 말의 반대로 하는 것을 즐겨서요.

정 : ‘얼깁이’라고 불러요. 얼굴이 커서 제가 놀리느라 지은 별명이에요.

### 어릴 적 평한씨가 아팠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정 : 네,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조금 걸리기는 했지만, 만나고 나서 보니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거예요. 자기 관리도 잘 하고... 병이라는 게 있다가도 닳는 거고, 없다가도 생기는 건데, 만나면서 그 부분



이 크게 생각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고, 건강을 더 챙기니까 안심이 되기도 해요.

### 결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점이예요?

조 : 아, 지금 집 청소하다가 나왔는데, 가구배치가 정말 힘든 거 같아요. 작은 집에 가구, 살림살이들을 잘 배치해 좀 넓게 보이게 해야 하는데, 정말 어렵네요. 지금 또 인터뷰 끝나고 가서 고민해야 해요.

정 : 제가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7년째 일하고 있는데, 일하면서 시간을 내서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정한씨가 많이 도와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같아요.

### 서로에게 결혼은 어떤 의미인가요?

조 : 결혼은 연애의 연장선!

정 : 맞춰가는 퍼즐 같은 거요?

이제 막 맞추기 시작한 거 같네요. 앞으로도 계속 잘 맞춰나가야겠죠.



### 어떤 가정을 꾸려나가길 원하나요?

조 : 상처를 주기 보다는 아껴주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해요.

정 : 서로를 믿어주고, 자유로운 동행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해요.

### 자녀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조 : 한 4명은 낳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 : 전 1명이에요.

조 : 뭐 서로의 생각 합쳐서 받을림해서 3명 정도로 타협해야겠네요.^^

### 결혼해서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어떻게 잊을까요?

조 : 제가 자취를 오랫동안 해서 음식을 잘 해요. 이 친구에게 몇 번 해준 적이 있어요.

정 : 저는 음식을 잘 하지는 못하는데, 정한씨가 잘 해주겠

죠? 제가 먹어본 것 중에는 정한씨가 이름 붙인 '만년설' 이라는 음식이 제일 맛있었던 거 같아요. 볶음밥 위에 피자치즈를 얹어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건데, 음..., 정말 만년설을 얹어 놓은 것 같은 생김새인데, 맛있어요.



### 치료 중인 어린이들에게 훈훈한 한마디 해주세요!

조 : 아픈 것, 그리고 아팠던 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픔을 인생의 방해물로 생각하지 마세요! 늘 도전하고, 부딪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정 :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치료받았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정말 풋풋하다’ 새신랑 새신부를 처음 본 느낌입니다. ‘정말 잘 어울린다.’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느낀 느낌입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행복한 가정 꾸려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세요! 아가 낳으면 또 갈 겁니다! 그 때도 지금처럼 인터뷰에 응해주실거죠?^^

소아암 어린이에게 애정을 갖고, 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정한씨에게 그리고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 준 유니씨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분의 결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사연 1과 사연 2가 만나서 행복이 된다.

### 사연 1

**“선생님! 가발 들어온 거 아직 없어요?”  
“어, 아직... 좀 더 기다려 보자!”**

이따금 소녀는 낭랑한 목소리로 재단에 전화를 합니다. 소녀는 뇌종양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부터 방사선치료, 조혈모세포이식까지 어렵다는 치료는 모두모두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여 반에서 2~3등을 할 정도로 학교생활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녀에게는 작은 고민이 있습니다. 뇌종양 치료 후유증으로 머리가 자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흔하지 않은 일이 소녀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소녀는 생의 가장 큰 산을 넘었기에 작은 산들은 이제 수월하게 여길 줄 아는 지혜를 체득했습니다. 소녀는 늘 밝고 명랑합니다. 소녀는 치료를 마칠 즈음부터 가발을 착용했습니다. 가발을 너무 예쁘게 잘 써서 다른 사람들은 가발이라는 걸 잘 눈치 채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발의 수명이 1년 정도여서 소녀는 계속해서 가발을 구입해야만 합니다. 고가의 가발을 해마다 사기는 어렵기 때문에 항암치료가 끝나고 더 이상 가발이 필요 없게 된 친구들의 가발 소식을 기다리며 소녀는 재단에 전화를 합니다.



### 사연 2

**재단으로 소포가 왔습니다.  
정성스러운 편지 한 통과 3개의 가발!**

안녕하세요! ○○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갑자기 소포가 도착해서 당황스러우실 거 같네요. 심심할 때 네이트판을 보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소아암 어린이에게 기증해 줬다는 내용의 글을 보게 되었어요. 저도 기증하고 싶었지만, 지금 제 머리길이가 그렇게 긴 편이 아니라서 고민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등학생 때였나? 머리를 너무 짧게 잘라버렸는데 그땐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가발을 샀어요. 가리고 싶었나 봐요. 근데 결국 불편해서 한 번 써보고 구석에 넣어두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단 좋은 일에 쓰고 싶어서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3개나 있더라고요. 맨 위에 있는 건 사용한 거고 밑에 두개는 새것입니다. 사용한 것도 씻어서 넣어두긴 했지만, 사용 안한 기간이 꽤 되었으니 씻어서 사용하시면 될 거 같아요. 오랫동안 넣어 두기만 한 거라서 가발 상태가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야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조금 걱정입니다. 아이들이 예쁘게 잘 쓰고 다니면 좋겠어요!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예쁘게 잘 써주세요~! 그럼 저도 굉장히 뿌듯할 거 같아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그런데 맞춤 가발이 아니라서 안 맞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이지윤입니다!

\* 이지윤 후원자가 보내 준 가발과 그 안에 담긴 사랑은 소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가발을 받은 소녀는 많이 행복해 했습니다. \*



## 생애 첫 번째 나눔, 첫 돌 후원

소중한 자녀의 첫 생일에 잔치를 치르는 것 대신 후원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처음으로 말하고, 처음으로 걷고, 처음으로 만지는 그 모든 것이 부모에게 감동이듯이 처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특별한 무엇보다 낫다르기 때문이지요. 화려한 돌잔치, 비싼 선물 대신 나눔으로 첫 번째 선물을 택한 가족이 있습니다. 은수의 특별한 첫 생일 잔치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첫 돌 후원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후원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와 남편 모두 후원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재단은 아니고요.^^ 저는 해외아동, 남편은 국내아동을 돕는 곳에 후원하고 있는데 은수에게도 저희처럼 나눔의 기회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연히 본 잡지에 첫 돌 후원이라는 기부방법이 있는 걸 알게 되었고 너무 잘 됐구나 싶었지요. 부모가 되고 나니 아픈 아이들, 그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족을 돕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더라고요.

**주변 가족들이 돌잔치를 하지 않는 걸 서운해 하지는 않으셨는지?**

양가 부모님께 '은수의 이름으로 후원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니 모두 좋다고 하셨고 칭찬해주셨어요. 가족들과는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함께 은수의 생일을 축하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은수의 이름으로 정기후원도 신청해 주셨어요, 사실 은수를 위한 보험, 적금 같은 걸 선택할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정기후원을 첫 생일부터 시작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 전공이 뮤지컬이에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공연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 선교공연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나눔, 후원은 꼭 해야 한다고 결심하게 되었어요. 은수가 스스로 결심해서 후원을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느끼고 배울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또 건강하게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첫 기부가 '첫 돌 후원' 이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길 바라고요. 요즘, 조기교육이 열풍이잖아요. 저는 나눔을 조기교육 하고 싶었다 할까요?

**은수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주세요.**

사랑하는 은수야, 엄마와 아빠는 너의 탄생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할 하나하나가 행복하고 소중한 단다. 우리 은수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길 바라면서, 그런 세상에 은수가 작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너의 첫 생일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단다. 은수가 커서 이웃을 돌아보고, 나누는 멋지고 용기있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며, 은수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은수는 첫 생일의 기쁨을 나눔으로 이웃과 함께했습니다. 은수가 커서도 부모님의 이 마음을 꼭 기억할거예요. 은수야, 너의 첫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렴!



\* 은수 외에 첫 돌 후원을 함께 해준 윤예빈, 이유주, 서지원, 김창훈 가족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이식비	치료비	
<p><b>농협협동조합중앙회</b> 김수인(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1,000만원</p> <p><b>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동양생명</b> 김다예(순철혈구빈혈/서울성모병원) 1,000만원</p> <p><b>(주)농수산흡소핑</b> 이용빈(비스코트알드리지중후군/해운대백병원) 1,000만원</p> <p><b>(주)이베이코리아</b> 각 2,000만원 이희승(무과립세포증/삼성서울병원) 장성광(유잉육종/국립암센터) 조범규(만성육아종병/삼성서울병원)</p>	<p><b>나항</b> 이용욱(골수이형성증/서울아산병원) 370만원</p> <p><b>농협협동조합중앙회</b> 김민건(재생불량빈혈/삼성서울병원) 450만원 오영환(황문근육종/국립암센터) 500만원 유재훈(혈막육종/국립암센터) 500만원</p> <p><b>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b> Gautam Bibas(카포시형대혈관내피종/세브란스병원) 2,501,783원</p> <p><b>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b> 각 500만원 박서희(중증재생불량빈혈/화순전남대학교병원) 서수빈(연부조직육종/국립암센터) 이지현(월름스종양/삼성서울병원) 차지현(유잉육종/국립암센터)</p>	<p>홍명보장학재단 각 690만원 김재욱(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성모병원) 이준혁(판코니빈혈/삼성서울병원)</p> <p><b>(주)농수산흡소핑</b> 이훈우(급성림프모구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 500만원</p> <p><b>(주)아이퀘스트</b> 박준서(급성골수성백혈병/국립암센터) 1,200만원</p> <p><b>(주)이베이코리아</b> 허승우(연부조직육종/국립암센터) 6,700,440원</p> <p><b>(주)토탈소프트뱅크</b> 김민형(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150만원</p>
<p><b>재할치료비</b></p> <p><b>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b> 장하권(버킷림프종/부산대학교병원) 350만원 조명준(송과체악성종양/영남대학교의료원) 400만원 서준원(신경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p> <p><b>한국아이엠에스헬스(주)</b> 이현우(급성림프모구백혈병/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340만원 전윤(신경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 300만원</p> <p><b>해피빈</b> 김형근(배아세포종/한양대학교병원) 700만원</p> <p><b>LG전자</b> 박도현(생식세포종/영남대학교의료원) 3,899,750원</p>	<p><b>에이스종합건설</b> 장재훈(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500만원</p> <p><b>우정사업본부</b> 각 300만원 빙승환(골육종/국립암센터) 장선영(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성모병원) 정대영(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성모병원)</p> <p><b>치료비기금</b> 장예은(결체조직성연골육종/충북대학교병원) 300만원 최하니(골육종/삼성서울병원) 400만원</p>	<p><b>(주)효성-연양공장</b> 김경빈(급성림프모구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 300만원</p> <p><b>KCMC</b> 김예원(유잉육종/국립암센터) 2,448,020원</p> <p><b>2008 'MBC어린이에게새생명을'</b> 이준혁(급성림프모구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 800만원</p> <p><b>2011 'MBC어린이에게새생명을'</b> Gautam Bibas(카포시형대혈관내피종/세브란스병원) 2,036,317원</p>



**간접치료비**

**일시 간접치료비**

**금호아시아나그룹**

유재훈(활막육종/국립암센터) 235,140원

**액센추어**

김주형(급성림프모구백혈병/충북대학교병원) 6,405,000원

**익명후원자, 지정기탁**

염미경(급성골수성백혈병/동아대학교의료원) 360만원

**인천지역검찰청여직원회**

유재훈(활막육종/국립암센터) 950,380원

이준희(판코니빈혈/삼성서울병원) 100만원

**주성철(주재련), 지정기탁**

김남정(식도협착,폐쇄증/서울대학교병원) 100만원

**강남구청(키앤드키월드)**

임동현(뇌종양/세브란스병원) 100만원

**피피디디디밸런스먼트**

장성광(유양육종/국립암센터) 100만원

**(주)농수산홍소핑**

이훈우(급성림프모구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 500만원

**(주)이노션** 각 100만원

권광렬(급성골수성백혈병/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김대현(급성이종표현형백혈병/서울성모병원)

김여현(뇌종양/서울아산병원)

박시후(신경모세포종/서울성모병원)

박지연(급성림프모구백혈병/인하대병원)

오제은(뇌종양/충북대학교병원)

오준석(골수이형성증/국립암센터)  
유희찬(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이지영(급성림프모구백혈병/삼성서울병원)  
한훈(황문근육종/서울대학교병원)

**(주)태진인터내셔널** 각 100만원

권원찬(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김제욱(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성모병원)

나영준(골육종/부산대학교병원)

박유림(황문근육종/경북대학교병원)

정대영(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성모병원)

**(주)호수의나라 수오미, 지정기탁**

김채민(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3,060,000원

**정기 간접치료비 (신규 의뢰 환자)**

**기업은행노동조합**

김건우(급성림프모구백혈병/전북대학교병원)

김지현(악성림프종/세브란스병원)

안윤수(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오서윤(연부조직육종/삼성서울병원)

최하니(골육종/삼성서울병원)

홍채윤(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디씨인사이드유아인갤러리**

이효민(신경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

**양진의료재단**

박정웅(호지킨림프종/서울성모병원)

장욱진(급성림프모구백혈병/경북대학교병원)

**유비쿼스**

채예준(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전부건 · 서지혜**

이유찬(망막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

**케이엘넷**

김범석(급성림프모구백혈병/삼성서울병원)

**한국거래소**

김윤경(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성모병원)

정영준(급성림프모구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

**(주)태진인터내셔널**

강성수(급성림프모구백혈병/세브란스병원)

김다예(순직혈구빈혈/서울성모병원)

이승환(급성림프모구백혈병/삼성서울병원)

**(주)효성 연양공장**

김건욱(뇌종양/부산대학교병원)

김경민(급성림프모구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

박성준(유양육종/해운대백병원)

**SK이노베이션 · SK루브리컨츠**

정재훈(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가발지원**

**하이모**

김소윤(급성이종표현형백혈병/서울성모병원)

임수민(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하소영(재생불량빈혈/서울아산병원)

**재단**

김민석(원시신경외배엽종양/서울대학교병원)

김채연(악성림프종/서울대학교병원)

>>> KCLF



2011. 12. ~ 2012. 2.

소아암 어린이들의 든든한 후원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기후원**

강공명 강윤정 고대우 고영문 고혜지 공은혜 구미경 구성희 권영백 김경은 김광성 김규민 김규성 김단아 김대현 김동호 김민경 김명옥 김문영 김미경 김미옥 김미정 김민규 김민지 김보영 김상현 김성현 김숙현 김양금 김영진 김우빈 김윤남 김윤희 김은주 김재규 김정은 김정하 김정희 김지윤 김태악 김혜숙 노경섭 노명서 노진석 류산국 박경선 박경식 박경영 박남식 박민지 박선영 박성화 박장걸 박준용 박지운 박진경 백경희 서원교 서혜린 선은정 성우현 송우진 송웅식 송정송 송춘호 신만재 신상은 신은미 심세희 양승학 양애나 양 영 양우승 양정일 양지선 양한승 오서원 오연서 옥창영 우동윤 우오성 우종문 원주리 원홍연 유양숙 유정현 유주연 유혜린 윤민정 윤성주 윤신애 윤현성 윤현철 이가운 이나니 이동현 이명재 이민호 이상현 이선혜 이세라 이수빈 이영은 이영훈 이윤희 이익현 이재덕 이재영 이지현 이지훈 이창열 이창협 이한별 이현주 이희정 임동미 임소연 임수아 임은수 임혜진 장대광 장석권 장영란 장은영 장효은 전수정 전은영 정연정 정예숙 정주영 정지우 정창우 정춘숙 정하은 조규민 조동수 조미숙 조민아 조선영 조영광 조은미 조희숙 주성우 최경숙 최지영 최희진 피 아 한경은 한희철 함준수 홍성별 홍정표 황석훈 황 진 황희대 (주)운재

**일시후원**

강한수 김남이 김다정 김동호 김민경 김민우 김보경 김연지 김영철 김윤찬 김정훈 김진우 김행임 김현종 김형준 김홍균 김흥한 김희수 류근하 류영기 박상복 박석환 박선민 박소현 배동찬 손 현 송재명 송지현 안선자 양태안 오동한 우장윤 윤도연 윤채연 이경보 이경연 이민재 이병환 이수진 이영인 이유주 이종원 임설희 장은아 전향순 전현주 조라운 조용권 지 지 최서영 한민섭 한지민 허재웅 변영외이어커팅 부안초등학교 서산현정유치원 운전초5학년 이마트단체지원 재경대동고동문 재단법인홍플러스 한국야쿠르트

**후원물품**

73한사랑회/부모모임 한복 강준모가족 갖김치 광주만수무강 한복 김선희 빵 김영훈 커피, 비누 김지호 김치 롯데닷컴 아동부츠 리바트 프로그램비 박광수 김치 박지연가족 꽃게 부산인형왕후 한복 삼성생명여의도지점 주방용품, 쌀, 프로그램비 서지에 과일 서울지방우정정보협업과 치약 송창한 빵 신한은행서울대병원지점 청소기 심경섭 가방 윤후식 장난감 이익균 과일 최준영 과일 이찬송 주방기구, 과일 제주신라호텔 전기압력밥솥, 쌀 치킨커플동성로점 치킨

**현열증(매)**

구자철(10) 권진욱(4) 김민재(11) 김성영(2) 김진용(10) 김태근(15) 김태우(1) 박기식(10) 박세진(309) 박용진(8) 박현규(39) 송부영(7) 송우진(1) 신동일(15) 이동원(2) 이 욱(12) 이재식(39) 임현우(37) 조덕희(5) 천강재(10) 한준미(26) 홍혜림(3) 넥슨(179) 돼지만화(162) 드림팩토리클럽(35) 벼룩시장(591) 부산체신청총무팀(80) 생명의말씀사(42) 서울대학교전기컴퓨터공학부(12) 선진(20) 우리동네노래팀(71) 천안공업고등학교(50) 축산물품질평가원(77) 푸드바스켓치킨스타(1,004) 한국도로공사(10,000) 현사모(28) 현대엘리베이터(206) 호남대사회복지학과(134) V원정대(44)

**후/원/계/좌**

국민은행 : 001-01-2353-890	신한은행 : 140-000-762725	우 체 국 : 012989-01-003327
농 협 : 029-01-176943	우리은행 : 112-04-112571	하나은행 : 144-121835-00105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 암치료에 꼭 필요한 암식단 가이드

저/ 연세암센터, CJ프레시웨이, 세브란스병원 영양팀  
출판사/ 삼호미디어



### » 소개의 글

암은 의료 기술의 발달로 진단 시기가 앞당겨지고 완치율 또한 높아지고 있지만, 환자들은 여전히 혹독한 항암치료에 힘겨워 한다. 항암치료기간에 의학적인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올바른 영양 관리이다. 많은 암 환자들이 암 진단 이후 식생활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암 치료를 받다 보면 후각이 더 예민해지고 입맛까지 변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먹는 것조차 힘든 암 환자에게 음식을 강요하면 더욱 고통스럽다. 부적절한 식품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항암치료로 인한 스트레스나 부작용으로 식욕까지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럴 때는 영양과 섭취량을 충분히 채워주면서 맛이나 냄새가 거북하지 않은 맞춤형 식사가 필요하다. 이 책을 통해 환자와 가족들은 항암치료 기간 동안의 적절한 영양 관리와 식생활 방법, 음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 책의 구성

#### 1장 항암 치료 시 식사는 달라야 한다

항암 치료 중에는 체력을 최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 암 환자의 대부분은 영양 불량을 겪는다 / 암 세포가 영양 불균형을 일으킨다 / 항암 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증상들 / 현재 식습관을 중심으로 대비해야 한다

#### 2장 항암 치료 시 올바른 식사 가이드

암세포는 약으로, 정상 세포는 영양소로 다스려라 / 나의 적정 체중과 영양 필요량 알아보기 /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위한 식사 계획 / 음식 섭취가 힘들 때의 식사 요령 / 암 환자의 올바른 식사를 위한 가족의 역할

#### 3장 암 환자와 가족이 알아야 할 식사 준비 요령

좋은 식재료를 선택하는 기준 / 식재료를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 / 올바른 식사를 위한 건강 조리법 / 천연 조미료 만들기

#### 4장 항암 치료를 위한 맞춤형 요리 만들기

#### 5장 암 환자가 걱정하는 상황별 올바른 식사법

외식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도시락 올바르게 싸기 / 건기능식품 현명하게 선택하기 / 영양보충식품 제대로 활용하기 / 적극적인 영양 공급 방법

#### 6장 암 재발을 예방하는 식사요령

건강 균형식으로 돌아가라 /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식사하라 / 식사 선택은 환자 스스로 하라 / 5초만 생각하고 선택하라 / 소박한 식사에 힘을 믿어라 / 좋은 생활습관을 유지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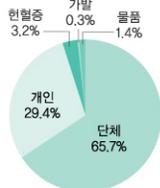
# 2011년 사업보고

## 수입

(단위:원)

구분	금액
재산 수입	21,042,147
후원금 수입	3,067,812,555
과년도 수입	4,014,040
보조금 수입	2,022,790
기타	22,195,437
<b>합계</b>	<b>3,117,086,969</b>

수입/후원금  
기부자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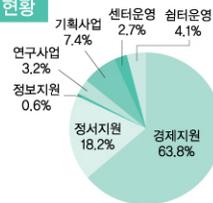


## 지출

(단위:원)

구분	금액
사업비	2,418,619,949
사무비	609,463,664
재산조성비(비품)	29,733,686
법인세	5,094,600
기타(미지급금)	767,151
<b>합계</b>	<b>3,063,679,050</b>

지출/사업비 현황



## ▶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 원)

구분	사업명	사업실적	금액	구분	사업명	사업실적	금액
경제적 지원	이식비지원	50명	575,226,639	정서적 지원	심리치료	369명	81,221,990
	치료비지원	145건	601,020,784		교육자료지원	26종/11,222부 배부	7,304,440
	재활치료비지원	21명	53,061,930		소아암교육	417명*	4,487,580
	일시간접치료비지원	85명	108,565,370		보호자교육	33명*	407,050
	정기간접치료비지원	118명	140,880,050		미니도서관	339명*	986,230
	현월증서지원	15,900매	63,868,840		소아암교실	방문 수 3,088건	99,500
정서적 지원	학습지원	48명	27,000,000	연구사업	연구지원	2건	77,349,820
	가발지원	71명	56,848,160		후원자관리	17,437명	81,440,379
	프로그램	1,308명*	7,197,470		후원개발	-	17,181,690
	희망메이커	1명	633,630	기 획 사 업	홍보사업	-	73,734,837
	가족행사	2,734명*	114,795,935		유관단체관리	-	425,900
	가족관계강화	169명	21,792,090		자원봉사자관리	-	806,758
	형제캠프	31명	12,313,360		교육훈련	-	6,546,330
	주거환경개선	228명	25,000,000		제수수수료	-	4,899,810
	체력증진지원	91명	20,000,000	쉼터운영	제세공과	5개소/20,890명	41,713,105
	사별가족지원	14명	3,021,990		장비유지비	-	51,886,822
	물품지원 외 기타	-	13,140,600	센터운영	제수수수료	-	57,552,000
	완치자 장학금지원	10명	30,725,060		제세공과	1개소/1,057명	4,745,480
	완치자 자기성장프로그램	12명	6,128,520		장비유지비	-	4,065,300
치료종결자지원	25개 병원/673명	20,544,500	<b>사업비 총계</b>		<b>2,418,619,949</b>		

\*쉼터 이용인원에 일부 포함

## 2012 우정사업본부 위탁공익사업 선정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명룡)는 2012년 우정사업본부 위탁 공익사업으로 '우체국 한사랑의집을 통한 소아암 환자 가족 통합지원'을 선정, 총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지난 2월 21일 열린 우정사업본부 공익사업 'Kick off' 행사에서는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 조인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습터 운영 및 다양한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의 지속적인 나눔실천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LG전자



2011년 12월, LG전자는 나눔 콘서트를 통해 모금한 후원금을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고객과 함께 나눔을 실천한 LG전자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나향

2005년부터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를 지원해온 법무법인 태평양 여자변호사모임인 '나향'은 2011년 12월 27일, 소아암 어린이의 치료비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나향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농수산홍소핑



2011년부터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농수산홍소핑은 지난 12월 그동안 치료비를 지원한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따뜻한 점퍼를 선물하였습니다.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진정한 따뜻함을 선물한 농수산홍소핑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동국제약

2011년 12월 8일, 동국제약은 사랑의 송년음악회에 치료 중인 소아암 어린이 가족을 초대하였습니다. 또한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후원금도 함께 전달해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 나눔에 동참한 동국제약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보령제약그룹 보령중보재단



2009년부터 매년 소아암 어린이 돕기 '노랑Reborn+ 캠페인'을 통해 헌혈증 기증과 모금 활동을 펼치는 보령제약그룹은 2012년에도 후원금 300만원과 헌혈증 110매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임직원이 함께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펼치는 보령제약그룹 보령중보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동양생명

동양생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지정기탁을 통해, 2012년 소아암 어린이 통합지원 사업을 후원하였습니다. 후원금은 치료비, 형제캠프, 희망장학금, 소책자 발간 등의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동양생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아이퀘스트

회계프로그램 개발업체인 아이퀘스트는 2011년 12월, 소아암 어린이 조혈모세포이식비를 전달하였습니다. 아이퀘스트 임직원의 나눔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액센츄어**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액센츄어 임직원은 2011년 연말 모금을 통해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을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액센츄어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에이스종합건설**



2011년 12월, 에이스종합건설 임직원은 급여 중 일부를 적립하여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로 500만원을 후원하였습니다. 나눔에 동참한 에이스종합건설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노션**



종합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그룹인 (주)이노션은 임직원이 바자회를 통해 모은 후원금을 2011년 12월 13일,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로 전달하였습니다. (주)이노션 임직원의 따뜻한 나눔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10년부터 소아암 어린이 돕기 협약을 맺고, 소아암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28일,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임직원이 함께 모은 후원금과 현물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태진인터내셔널**



2005년부터 소아암 어린이를 지원하고 있는 태진인터내셔널은 2011년에도 소아암 어린이의 치료비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는 태진인터내셔널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한국아이엠에스헬스**

한국아이엠에스헬스 임직원은 2011년 12월 1일, 임직원의 행사를 통해 모은 후원금을 재단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2010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나눔 활동에 동참하는 한국아이엠에스헬스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한국증권금융**



2010년부터 소아암 어린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한국증권금융은 2012년 임직원이 함께 급여를 모아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한국증권금융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현대엘리베이터 후원금 · 현물증 전달**



12월 21일, 현대엘리베이터에서 후원금 및 현물증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임직원 현물행사를 통해 모아진 현물증과 완치자를 위한 장학금을 함께 전달해 주었습니다. 나눔에 함께해 준 현대엘리베이터 임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한국도로공사 헌혈증 전달

한국도로공사는 한 해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30곳에 헌혈증 수집함을 배치하여 모아진 총 10,000매의 헌혈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나눔에 동참한 한국도로공사 임직원과 고속도로 이용 고객에게 감사드립니다.

## 호수의나라 수오미



호수의나라 수오미는 순둥이 물티슈 판매 시, 100원씩을 적립한 금액과 임직원이 함께 나눔에 참여한 후원금을 모아 재단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순둥이 물티슈도 함께 전달해 주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호수의나라 수오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기금 전달

- 피피디 : 임직원 모금활동을 통해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 우리동네노래팀 : 공연을 통해 모금한 후원금과 헌혈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 아모레퍼시픽 : 아리따움 미스트 판매금액 중 일부를 적립하여 후원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 인천지방검찰청여직원회 : 인천지방검찰청여직원회는 모금을 통해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 스타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

- 틱탑 엘조 팬사이트인 '허니플로우'에서는 엘조의 생일을 맞아 신규앨범 및 해피빈공을 기부해 주었습니다.

- 사이니 온유 팬사이트 '징뽀'에서는 온유의 생일을 맞아 심터 가족을 위한 떡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 엠블랙(MBLAQ) 팬클럽 '에이플러스'에서는 엠블랙 신규앨범 출시를 맞아 500장의 앨범을 기부해 주었습니다.

\* 스타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눔으로 실천하는 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소아암 어린이 홍보대사 임명·종결식



2010~2011년 몇지개 소아암 어린이 홍보대사를 수행해준 김호경, 박현규 어린이 가족에 이어, 2012년에는 이예나, 김보미 어린이 가족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소아암 가족들의 희망을 위해 함께 달려 줄 '소아암 어린이 홍보대사'의 멋진 모습을 기대해 주세요!

\* 소아암 어린이 홍보대사는 일반 대중에게 소아암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여러 홍보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

## 사별가족 프로그램

### High Five '마음산책' 참가자 모집

아이를 먼저 하늘로 보낸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을 마음산책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 내용: 강의(사별 이후, 심리적 상황에 대한 이해), 고궁산책, 전통문화체험(아동대상)
- 대상: 사별한 소아암 어린이 부모 및 형제자매(만 6세 이상)
- 일시: 2012년 5월 19일(토) 9시 ~ 16시
- 장소: 서울 종로구 가회동
- 신청 및 문의: 02)766-7671, 02)745-7671

## 한사랑의집에서는

www.kclf.org

### 서울 우체국 한사랑의집

#### 연평도에서 날아온 꽃게



연평도 포격사건과 집 화재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아암 어린이 가족이 이제 모든 걸 추스르고 그동안의 도움에 감사하다며, 꽃게 두 박스를 보내주었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잡아 올린 소중한 꽃게는 서울의 심터 가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보내는 마음, 받는 마음, 감사와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 리스 만들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정성과 마음을 담아 리스를 만들었습니다. 심터 가족들은 여러 가지 재료로 원하는 모양대로 나만의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들며, 잠시나마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아이엠에스헬스(주)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 부산 우체국 한사랑의집

#### 2011 치료종결PARTY



지난 12월 27일, 소아암 치료를 잘 마친 친구들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치료 중인 친구들의 축하의 박수, 치료가 끝난 친구들의 격려의 박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 동안 힘든 치료를 견뎌낸 멋진 우리 친구들의 앞날에 밝은 기운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 본 프로그램은 아비스타사랑나눔 동호회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 문화예술체험 뮤지컬 '명성황후'

지난 12월 17일,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은 뮤지컬 '명성황후'를 관람하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고운 빛깔의 한복과 화려한 궁중가마에 아이들은 환호했습니다. 바깥나들이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가족들의 모습이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현대해상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 대구 우체국 한사랑의집

#### 우리는 모두 친구란다.



지난겨울, 고성군 자원봉사센터 아이러브봉사단 친구들이 직접 만든 손뜨개 모자를 소아암 친구들에게 선물했습니다. 귀여운 모자가 어떻게 왔는지 이야기하는 도중에 소연이(가명)가 물었습니다. “이건 정상인 아이들이 만든 건가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암은 분명 지금 소연이의 인생에서 너무나 큰 아픔이고 시련일 것입니다. 비록 이 아픔으로 흥터는 남을 수 있지만 아물 수 있음을 소연이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 현이는 챔피언!



7살 개구쟁이 현이는 심터에 오면 게임 하는 걸 즐거워합니다. 언제나 온몸과 정성으로 임하지만, 캐릭터의 풀죽은 모습으로 게임은 마무리됩니다. 현이는 ‘최선을 다했어, 괜찮아.’라며 본인을 위로하지만, 목소리의 힘은 점점 빠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게임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저 뿌듯한 표정과 늠름한 자세. 이날 현이는 챔피언의 행복을 맘껏 누렸습니다.

# 우리들의 새해맞이





소연이 : 선생님! 언니가 그린 건 선생님하고 하나도 안 닮았어요.

내가 다시 그려줄게요. (잠시 후)

내가 그린 게 선생님하고 똑같아요! 정말 똑같지요?

선생님 : 왜 정말 똑같다.

가랄 소연이가 그려 준 '사실주의 초상화'는 저를 미소짓게 합니다.